

수원 운불련 '효도관광' 떠나던 날



◇용인노인요양원 효도관광을 마친 한국온전기사불자연합회 수원지역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가슴까지 시원해... 그렇지 할멈!

요양원 어르신들 개인택시 40여대에 분승 3·1운동 기념관등 관광...점심후 흥겨운 한때

"오늘은 미더기를 꺾지 않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맞기 때문입니다." 10월 8일 오전 8시, 경기도 연꽃마을 용인노인요양원 앞마당. 개인택시 40여 대가 늘어섰다. 차량마다 노란색 깃발 두 개도 내걸렸다. '운불련 육바리밀 마크'와 '수원지역회 효도관광'이라 적힌 깃발들. 온통 노란 물결이다. 한국온전기사불자연합회 수원지역회(회장 연덕주)가 올해로 6번째로 마련한 '어르신 효도관광'을 떠나는 날. 70여명의 어르신들이 나왔다.

오전 9시, 운불련 법당이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차를 선두로 운불련 택시, 구급차, 경인차 등이 줄지어 길을 나섰다. 첫 방문지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들이는 곧장

황금빛 가을 들녘 길로 이어졌다. "마냥 좋아. 바리처럼 쏘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여행을 나오니 가슴까지 시원해. 경옥 할멈 그렇지 않아" 10번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염춘성 할머니(82, 18번 '번지 없는 주막'의 노래 가락이 흘러나온다.

1시간 후 도착한 안성 금강호수. 점심시간을 겸한 노래자랑 한마당 시간이 벌어지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운불련 수원지역회 연덕주 회장은 "미려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기쁨을 드려 경찰차를 선두로 운불련 택시, 구급차, 경인차 등이 줄지어 길을 나섰다. 첫 방문지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들이는 곧장

불교체험·영산재등 다양한 행사

범어사, 개산대재 500여 시민 참가

범어사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불교전시, 불교문화 체험, 불교문화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제 1회 불교문화대제가 열렸다. 또 통도사가 연 4-5일 개산 1358주년 기념 개산대재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했다.

범어사는 '부처님 나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관조스님 사진전, 범어종 물단 길놀이, 범어사 합창단,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 합창단 등 불교합창단의 음성공양, 바라밀 무용단의 연화무, 검무 등을 비롯 가흥빈가 중전단의 민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4일에는 불무도 시범, 영산재 공연을 선보였으며 행사 3일간 경내 곳곳에서 전통등 만들기, 탁본, 다도 시연, 달마조사상 그리기, 금정산 환경캠페인 등을 마련해 약 500여명의

시민들이 체험 행사에 동참했다. 통도사는 개산조와 역대 선지식의 뜻을 기리는 부도헌다제와 개산대재 법요식,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등의 행사와 더불어 사진전, 사생대회 등을 열어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며 개산의 의미를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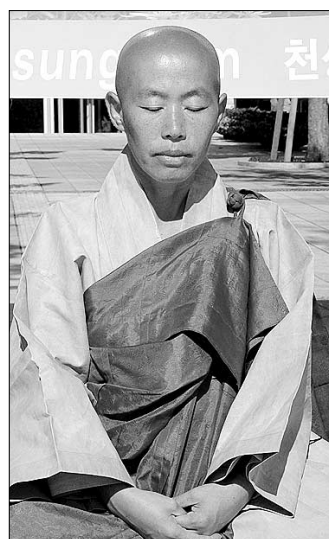
개산대재 법요식에서 주지 현문스님은 "개산조인 자장율사의 수행가 풍을 기리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로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끼는 법향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산대재는 합창제, 포교국 작품 전시회, 사진전, 꽃꽂이전, 유지원 재통잔치, 영축 사생대회를 비롯 진주 청곡사 폐불탱 특별전이나 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개막해 내내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천미희 기자

지울스님, 다시 무기한 단식

천성산관통강행 항의, 공동대표 7명도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울스님.

경부 고속철도 대구-부산 노선의 천성산 관통 강행을 반대하며 내원사 대중스님들과 천성산 화엄불까지 삼보일배를 했던 지울스님이 삼보일배 회향 다음날인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2월, 3월 38일간의 단식에 이어 또 다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한 것이다.

지울스님과 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는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성산대책위와 민원 당사자인 내원사를 배제시키고 구성된 노선 재검토위원회 조사를 통해 내려진 천성산 관통 강행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한 지울스님의 단식에 조계암 주지 동진 스님, 원불교 황도국 교무, 마산환경운동연합 이인식 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공동대표 7명도 동조단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경대학교 행정학과가 7일 연 제3회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모의 국무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 갈등'이 다뤄져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프나... 나도 아프다"라는 주제로 부경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모의국무회의는 5월부터 자료수집, 현장답사, 지울스님 인터뷰 과정을 거쳐 행정학과 학생들이 직접 준비했다.

천미희 기자

고승대덕초청 선사화전

부산 불교TV 기금 마련

불교텔레비전 부산방송(사장 정암)은 8일부터 12일까지 국제신문 제2전실에서 불교텔레비전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고승대덕초청 선사화전을 개최했다.

8일 불교텔레비전 사장 성우, 불광사 주지 종학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월하, 월주, 금니사경으로 유명한 종학스님 등의 작품 80여점이 선보였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11월 산중총회

차기 주지선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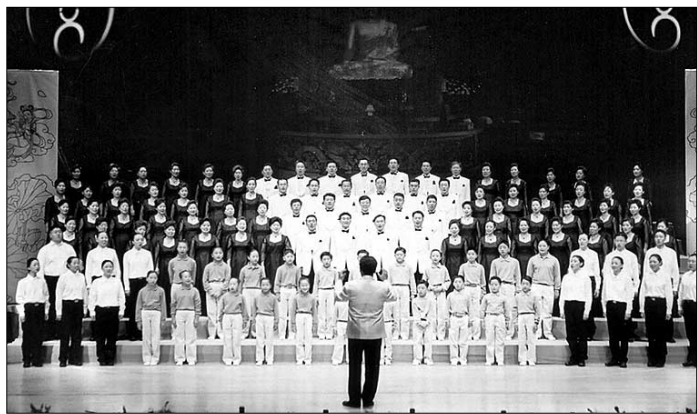
범어사주지 성오는 10월 8일 경내 휴휴정사에서 문중총회를 갖고 차기 주지 후보로 지효스님 문중에서 적임자를 추대해 후보를 단일화하고 11월 3일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스님등 관리위원 4명을 선출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불교환경보전위

환경살리기 거리캠페인

대구불교환경보전실천위원회는 10월 8일 오후 1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살리기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대구 NGO환경감시단이 함께 이날 캠페인은 쓰레기 절감, 야외환경유지 지키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환경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박원구 기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합창단은 3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고있다.

합창단 창단10돌 음악회·독거노인 돕기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합창단(단장 부정숙)이 10월 3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기금조성식도 마련돼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혼성합창, 보살합창 등의 1부와 가곡합창, 청년합창, 거사합창, 혼성합창 등의 2부 순으로 진행된 음악회는 지범 스님과 우담바리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혜묘 스님은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무의탁 독거노인돕기 기금 1천748만9천30원을 7일 권영철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흥복 기자

특히 가족합창 순서에서는 합창단이 선봉가 대중가요를 선보여 관객들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등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냈다.

제주지역 불교합창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남성 20명, 여성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랑비에 있어 도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백여 회의 공연과 함께 제주발전과 도민안녕을 위한 기원법회 등 음성공양을 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 종회의원 혜원 스님(한마음선원 주지)과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 중원 스님, 천통사 회주 향운 스님을 비롯한 한마음선원 지원자 스님들,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1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한편 혜묘 스님은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무의탁 독거노인돕기 기금 1천748만9천30원을 7일 권영철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흥복 기자

불국사 성림문화재 연구원 설립

15일 개원법회 봉행, 이사장 성타스님

지역 불교계에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기 위한 전문 문화재 연구기관을 창립한다.

경주 불국사는 경주시 성간동 불국사 문화회관 3층에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이사장 성타)을 설립하고 10월 15일 오전 11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윤조 준비위를 발족한 성림문화재 연구원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설립 후 경북지역 문화재의 발굴 및 연구·조사 학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이 이사장, 단국대 박물관장인 정영호 교수가 원장 소임을 맡게 된다. 박원구 기자

원효예술제 경주서 열려

전통타악·창작극등 공연

원효성사의 원효회통, 화쟁사상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제8회 원효예술제가 경주 분황사에서 개최됐다.

불국사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8일 원효예술제는 10월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공연이

열리는데 이어 원효성사 봉헌법요식이 봉행됐다.

법요식에서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은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마음깊이 새겨 우리사회에 평안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2부 특별공연에서는 풍물굿패 소리광대의 15인조 전통타악 공연 등이 이어졌다.

박원구 기자

수련안내

현대불교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자비수관(慈悲手觀) 프로그램

◆일 시: 10월 20일(월) 오후 2시 ~ 10월 26일(일) 오후 2시

◆지도법사: 지운 (전 송광사 강주)

◆내 용: 4념처 중 몸 관찰을 중심으로한 관법(위빠사나), 지혜 개발 수행

◆준비물: 간편복장, 담마를 체득하겠다는 의지,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련비용: 20만원

◆연락처: 031)574-558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봉인사 www.bonginsa.net

감사의 말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3일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에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번갈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많이 참석하시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주지스님을 비롯한 본원 및 각 지원 스님과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요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지원장 혜묘 단장 부정숙 외 단원일동 합장

광주 방부불교병원

불교계 최초의 불교병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정신을 승화시켜 사회복지와 인간애를 구현하는 사랑 실천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방부불교병원이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내가족을 돌보는 정성으로 온누리에 자비와 인술을 베풀겠습니다.

임직원 일동

▶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 전 화: 062)221-3300